

나주, 쾌적한 수질·침수 예방 '두 토끼'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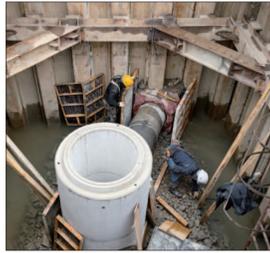
LOCAL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428억 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착수...주민 편의 개선 윤병태 시장 "도시·농촌 지역 하수 처리 효율 향상"

나주시가 시민을 위한 쾌적한 수질 환경 확보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올해 428억 원 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들어갔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하수도 정비는 지난 2024년 하반기에 착수한 나주·농촌 지역 하수처리 시설 확충 등 도시 침수 예방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 확충(41억 원), 공공하수도 확대(293억 원), 노후 관로 정비(63억 원),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31억 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빛가람수질복원센터 증설 및 남평 금당 등 마을 5곳 하수처리장 정비에 148억 원을 투입한다. 산포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186억 원), 공산치리구역 및 나주공공하수처리장 유입 노후 차집관로 정비(63억 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을 완료하면 하수처리장 증설 용량 4000㎥/일, 관로 시공 구간 43km가 정비돼 하수 처리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나주시가 시민을 위한 쾌적한 수질 환경 확보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올해 428억 원 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착수한다. 사진은 하수도 정비 및 나주전 일원 공공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 장면.

된다. 특히 읍·면 지역과 빛가람동 등을 포함한 8개 지역 하수 처리 효율을 대폭 개선할 뿐 아니라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나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2024년도 남

평읍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 사업을 지난해 완료했다. 이어 올해 삼영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삼영지구 사업은 국비 179억 원을 포함해 총 299억 원을 투입해 시간당 강우량 83mm를 감당할 수 있는 빗물하수관 2.4km를 설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영강·남부 빗물펌프장 2개소를 증설하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각각 추진한다. 윤병태 시장은 "차질 없는 하수도 정비를 통해 지역 하수 처리 효율을 높이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면서 영산강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나주=조원진 기자 pose007@

함평, 문화복지카드 대상자 모집 6월 30일까지...연 25만원 지원

함평군은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선정된 청년은 1인당 최대 25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청년들이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집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상시 접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2023년 3월 4일 이전부터 전남 도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19~28세 청년(1997년~2006년 출생자)이며 지난해 선정된 사람도 자격 조건 확인을 위해 올해 새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농협카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함평=최원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24회 광양매화축제' 열흘간 대장정 돌입 매화문화관 앞 주무대에서 개막식 개최

제24회 광양매화축제가 지난 7일 광양시 다압면 매화문화관 앞 주무대에서 개막식을 갖고 10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막식에는 관영국 국회의원, 정인화 시장, 조현욱 시의회 부의장, 사군자 지자체(담양 대나무, 신안 난, 함평 국화, 광양 매화) 관계자와 상춘객 등 200여명이 참석해 남녘의 봄소식을 알렸다. 김종호 광양매화축제위원장은 개최사에서 "광양매화축제는 끊임없는 변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며 지속적으로 성

장하고 있다"며 "올해는 한층 다채로운 축제 콘텐츠로 지역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인화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매화축제는 개화가 다소 더뎠지만 점차 기온이 상승하면서 아름다운 광양매화마을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사군자 테마 축제를 여는 4개 시군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K-문화의 저력과 가치를 이어가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발전하고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제24회 광양매화축제가 지난 7일 광양시 다압면 매화문화관 앞 주무대에서 개막식을 갖고 10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담양, 건강 돌봄 체계 강화 우리마을 주치의 등 추진

담양군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공모사업', '우리마을 주치의 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주민건강 지킴이 사업은 경로당에서 협양·형당 측정, 건강 상담, 만성질환 예방 교육,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추진 어르신 건강관리와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고 있다. 우리마을 주치의는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의 가정에 공중보건과 보건의료서비스 담당자 등이 방문해 대상자의 건강을 파악, 적절한 투약 관리와 상담을 진행한다. 정광선 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인력과 보건의료인력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며 "어르신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우 기자 jwnews@gwangnam.co.kr

곡성, '청년참여형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 선정 사업비 1억5000만원 확보...상가 25곳 간판 교체

곡성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관한 '2025년 청년 참여형 옥외광고 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옥외면 대학로를 대상으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대학생들이 직접 소규모 상가 25개소의 간판을 디자인하고 군에서는 노후 간판의 교체와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들에게 실무경험과 지역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전남과학대와 협력해 1학기 정규

수업 과정에 관련 수업을 개설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 상권에 맞는 개선 있는 간판을 제작하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삼점주와 대학생이 직접 협의해 디자인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상점의 정체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간판이 제작될 예정이다. 더불어 군에서는 간판 제작과 설치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편 곡성군은 간판개선 사업을 필두로 옥과 대학로를 청춘거리로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소흥 기자 photo25@

장흥, 촘촘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4인 가구 중위소득 6.42% 인상...복지사각지대 해소

장흥군이 촘촘한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9일 장흥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 생계급여 지원액이 기준 183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월 최대 12만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제도 개선 사항으로 자동차 소득환산율(4.17%) 적용 기준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재산의 경우 기존에는 일

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대상이 배기량 1600cc 이하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됐다. 차량가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해 자동차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기존에는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였으나 앞으로는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군은 그동안 복지혜택이 필요함에도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적극

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대폭 완화된 제도를 알려 더욱 확대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읍·면 복지업무 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해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맞춤형 복지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2025년 생계급여 인상과 복지기준 완화 등 더욱 든든해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동안 아쉽게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약국출시

한국인은 K-낙산균

세계에서 인정받는 K-낙산균
최초의 한국형 낙산균입니다.

문의전화 1588-8529